

조선시대 樓建築의 지역별 유형특성

최 미 경*

(성균관대 박사과정)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누, 중층, 누하진입, 사찰, 향교, 서원, 경상북도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누(樓)는 우리나라 건축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구조형식 중 하나이다. 한문 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는 바닥에서 들어 올려진 구조를 뜻하며¹⁾ 기능을 뜻하는 명칭과 결합하여 문루(門樓), 누정(樓亭), 누각(樓閣) 등으로 불리어 진다. 누는 단독건축으로 지어진 누정과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사찰, 향교, 서원 등에서 건축군의 일부로 지어진 누로 분류할 수 있다. 건축군의 일부로 지어진 누는 경사진 지형에 중층구조를 이용하여 건축군의 시각요소를 풍부하게 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누는 조선

시대 사찰, 향교, 서원 같은 여러 공공건물에 널리 활용되었다.

지금까지 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 (1) 각 건축형식에 사용된 누에 관한 연구
- (2) 누정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 (3) 누의 구조와 공법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독 건물로서 누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건축군의 일부로 지어진 누에 관한 비교 연구는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다.²⁾

본 연구는 사찰, 향교, 서원의 건축형식에 활용된 누가 건축주체에 따라 용도와 기능이 다름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 가지 건축형식에 나타난 누의 구성방법이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분석, 비교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교신저자, 이메일: miky-c@hanmail.net

1) 루에 대한 해석은 한국과 중국에서 조금 다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樓는 重屋이라 하며 단층건물 위에 덧붙여 세운 의미로 보았다. 루(樓)자는 목(木)과 루(婁)에서 왔는데 木은 목구조를 뜻하고 婁는 비었음을 뜻한다. 즉 목구조가 공중에 있는 집을 樓라 하며 루는 원래 공간구조방법의 하나로 설명했다. 單力, 『說樓』, 山東畫報出版社, 2쪽, 5쪽, 2004

“樓, 重屋也. 總木, 婁聲” 장기인은 루를 높게 놓은 마루, 마루널을 칸 이층집으로 설명하고 마루바닥이 지면보다 높게 되거나 이층처럼 지은 다락집과 같은 뜻으로 보았다.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4쪽, 1998

2) 누에 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사찰에 관한 누의 연구는 홍병화(연세대), 성상모(충북대 박사논문2004), 향교의 누는 조영화(영남대 박사논문 1994), 누정에 관한 연구는 이용범(전남대 박사논문 1994), 문루에 관한 연구는 장호준(서울대 석사논문 2003) 등이 있다.

8 논문

1-2. 조사대상 건축물의 선정 기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조선시대의 사찰, 향교, 서원 세 형식에 활용된 층루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단독으로 지어진 누는 제외하였고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층루³⁾인 경우
- (2) 경사지에 위치한 경우
- (3) 누하진입 또는 누하진입에 해당하는 높이를 가진 경우
- (4) 누를 포함한 배치형식이 중정을 이루거나⁴⁾ 중정에 준하는 형식인 경우

[표 1] 조사대상 누의 지역분포

형식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기	강원	계
사찰	9	2	2	1	X	1	1	1	17
향교	6	4	X	1	2	1	1	2	17
서원	6	2	X	1	X	X	X	X	9
계	21	8	2	3	2	2	2	3	43

이 조건에 해당되는 건물을 각 지역별로 선정하였다. 총 43곳의 대상지는 사찰 17곳, 향교 17곳, 서원 9곳이다. 사찰과 향교는 중요성 때문에 서원에 비해 많은 건물을 선정하였다. 서원의 경우 충청도, 경기도 지역에는 대상지가 없었다. 충청남도과 전라도 지역의 사찰은 누하진입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지역특성의 비교를 위해 대상지에 포함하였다.⁵⁾ 경상북도 지

3) 여기서 말하는 중층의 개념은 적층구조의 누마루 형식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건축에서 중층건물이라 함은 외부에서 중층을 이루면서 내부가 통칸인 건물, 또는 내부에 상층 바닥을 둔 문루를 뜻한다. 김덕문, 김경표, 「중층건물 층구조의 유형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 117쪽, 1996

4) 옥천향교의 경우 동재, 용궁향교의 경우 서재 위치에 건물이 없으나 전체 개념은 중정을 이루어 포함시켰다. 신산향교의 경우 동서재가 직각으로 루에 연결되기 때문에 중정으로 간주하여 포함시켰다. 필암서원은 경사지 진입과 중정을 이루지 않지만 원래 경사지에 지어졌던 건물로 비교를 위해 포함시켰다.

5)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조사대상 사찰 중 흥주사, 선암사, 화암사는 누하층의 높이나 대지의 경사각이 기타 지역과 유사하고 조선 초에 지어져 건축사적으로 중요

역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이며 선정 건축물도 총 43곳 중 21곳이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다.

2. 건축군의 일부로 활용된 누의 역사적 배경

누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여러 사료에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 귀족주택에 이미 중층건물과 누문이 사용되었고 부경(扶京)과 같은 다락집구조의 건물이 나타난다.⁶⁾ 중국의 문헌에는 백제에서 고상식주거가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⁷⁾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삼국시대 누는 누각, 누대처럼 단독건물로서 종교의식용 건축이나 궁궐건축으로 활용되었고 다른 한 편으로 주택의 일부로서 다락집 형식과 문루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⁸⁾

고려시대 유학자 이규보(李奎報)는 누정의 역사와 구조를 비교, 정의하였는데 집 위에 집을 지은 것을 누라 하고, 나무판자로 쌓은 것을 대(臺), 난간을 겹으로 한 것을 사(榭)라 하며 특 트여서 텅 빈 것을 정(亭)이라 한다고 하였다.⁹⁾ 이규보는 많은 누정기를 통해 자연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포함시켰다. 향교의 경우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아 진입 후 1층을 조성하지 않으면 누하진입을 하는 경우라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서암서원의 경우 경사지 특성이 없으나 경북지역 서원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필암서원의 경우 경사지가 아니지만 경사지 형식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었다.

6) 다락집 형태의 건물벽화는 麻線溝 제1호분에 있다.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119쪽, 1996

7) 백제의 고상식 주거에 대한 내용은 [晉書] [肅慎氏條]에 巢居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後魏書에는 “百濟其民上著地下濕”이라고 기록하였다.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173쪽, 1996

8) 고급주택에 사용된 누에 대한 기록은 중국에서도 불교 도래 이전부터 나타난다. 전국시대에서 한 대에 이르러까지 중국의 지배계층에서는 신선사상이 널리 유행하여 집에 높은 건물을 지음으로서 수직상승의 비당을 피했다. 馬曉, 『中國古代木樓閣』, 中華書局, 7-8쪽,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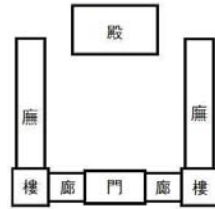
벗하여 심성을 정화하는 누정의 가치를 높이 두었는데 이러한 실용적 자연관과 신선사상은 삼국시대부터 지속해 온 자연친화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건축군의 일부로서 누의 구체적인 형식은 통일신라시대 불국사의 범영루(泛影樓)와 자하문(紫霞門)에서 회랑과 연결된 문루의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¹⁰⁾ 이 시기까지 건축군을 이루는 영역의 전면에 층루가 나타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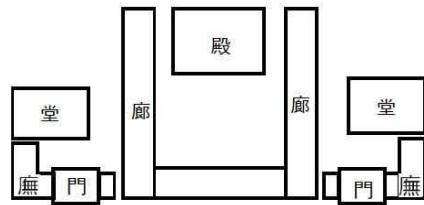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문헌과 사지를 통해 층루가 건축군의 일부로 건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문헌에 나타난 누의 구조와 건립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 내용은 사찰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개국사(開國寺)의 누문에 관한 내용을 보면 “높은 전각(殿閣)을 위쪽에 짓고 긴 행랑을 양편 옆으로 지었으며 두 행랑 끝에 다락을 짓고 마루를 놓으며, 두 다락 사이에 지붕을 이어 문간을 지었다.”¹¹⁾(그림2 참조)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면의 좌우에 누를 세우고 그 사이에 중층(中層)마루와 누문(樓門)을 세웠다고 해석된다. 건립시기가 1326년으로 누에 대한 구체적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이다.

사지를 통해서 고려시대 층루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고려 중기 대각국사의 중창기(1147년)¹²⁾에 나타난 중창건도를 보면 선암사



<그림 1>
개국사추정배치도



<그림 2> 선태 범왕사 추정 배치도

일과 전면에 일곱칸 중층루가 조계문을 지나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층루는 현재의 범종루 위치로 발굴된 사지를 통해서 전면에 설치된 누의 흔적이 확인된다.

선암사는 [조계산선암사사적]에 의하면 도선국사에 의해 875년(통일신라 헌강왕 5년)에 창건된 절로 고려시대 의천에 의해 중건되었다. 여러 번의 중창을 거쳐 현재의 가람은 의종 원년 1147년에 조성되었다고 한다.¹³⁾

순천 선암사 이외에 사지 발굴조사에서 나타난 문루(門樓)의 흔적은 세 곳에 더 나타나고 있다.

는데 건도에 적은 년기에 따르면 고려 의종 원년(1147년)으로 되어있다. 이 시기는 이미 대각국사 의천이 사망한 후이나 그가 중창을 이룬 후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논문에서 이 중창건도기가 18세기에 만들어 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기록에 남긴 내용이 18세기의 배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1147년이라는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김동선, 「선암사 입지선정과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61-65쪽, 1999

13) 김동선, 「선암사 입지선정과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67쪽, 1999

9) 이용범 외 2인, 「동문선의 누정기에서 본 고려 중, 후기의 누정건축고」, 건축역사연구, 제2권, 40쪽,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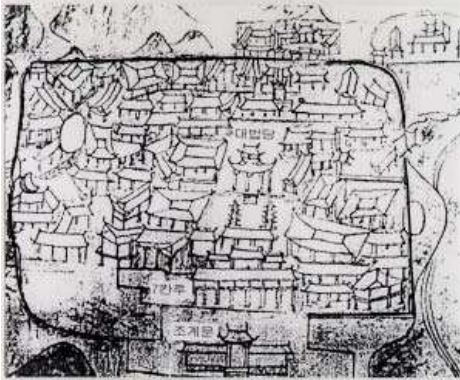
10) 원래 범영루의 명칭은 須彌梵鍾閣이었다고 한다. 이는 부석사 범종각의 구조, 명칭과 매우 흡사하며 평지 사찰이 경사지 사찰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적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정기호, 「사찰조경연구」, 제7권, 31-41쪽, 1999

11) 이행외,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권, 개성부 하, 서울출판사, 513쪽. 익재 이재현의 기문이다. 廡于兩傍樓兩廡之端而軒焉廊, 兩樓之間而門焉.

12) 이 중창건도는 현재 선암사 의향각에 보존되어 있

10 논문

(1) 임블리 천덕사지 - 증문으로 외부와 경계를 두었는데¹⁴⁾ 2층으로 정면 5칸 측면 1칸의 규모이고 범종편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이층은 종루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 3> 선암사 重創建圖 가람배치(부분)

(2) 대구 부인사지 - 고려시대 유구의 증문이 발견되었고 누각의 형태로 추측, 정면 3칸에 측면 1칸이고 평면규모는 10.9미터에 4.1미터다. 불에 탄 문형 판재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누각형 문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남원 실상사지 - 실상사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만세루로 추정되는 건물형식이 발견되었다. 정면 5칸에 측면 3칸으로 평면규모는 16.2미터에 6.4미터이다. 사찰 출입을 위해 정면 3칸은 개방되었고 나머지 2칸은 생활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불교는 귀족층부터 서민층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사찰의 건립도 전국에 걸쳐 폭넓게 확산되었다. 정부와 귀족의 지원을 받는 도심 사찰들은 규모가 크고 정형성을 유지하는 경향으로 이어진 반면 신앙결사운동¹⁵⁾

을 주도한 선종계 사찰은 산간에 비교적 자유로운 배치형식으로 지어졌다. 산지에 건립된 사찰은 회랑과 문, 종루, 경루와 같이 평지사찰에서 건축물의 위계와 영역을 만들어 주는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금당, 승방, 강당, 요사로 중정을 만드는 배치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당의 전면에 누가 위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¹⁶⁾ 이러한 가람배치 변천의 원인은 사찰의 입지, 종파, 시기에 따라 달랐을 것이므로 한 가지 이론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다만 경사가 있고 조망성 확보가 중요한 산지의 사찰들에서는 누가 비교적 일찍 사찰 중정의 중심 건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3. 세 가지 건축형식에 나타난 누

3-1. 사찰의 누건축

조선시대의 사찰은 승유억불 정책에 의해 개경을 중심으로 한 평지사찰의 경우 대부분 폐사의 운명을 맞았다. 반면 산 중에 지어진 선종계 사찰들은 불교배척 상황 속에서도 자생적 활동으로 조선불교의 존립근거를 만들 수 있었다.

경사지에 지어진 사찰은 평지와 달리 중축선 상의 공간 이동이 쉽지 않았다. 자연히 경사지의 상단에 주전각을 세우고 경사지의 하단에 누를 건립하여 중정을 중심으로 법당, 승방,

한 백련결사다. 강화도 무신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수선결사는 고려시대 후기 그 세력기반을 확장한 반면 상주에서 몽고침략으로 기반을 상실한 백련결사는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92-95쪽, 1998

16) 김봉렬은 그의 논문에서 금당 뒤의 강당이 증문과 결합하여 누각강당으로 정착했다는 이론을 주장하였고 주남철은 강당과 금당이 중간 위치에서 결합하여 대웅전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18쪽, 1989,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조선시대편, 421쪽

14) 이러한 형식은 불일사, 선암사의 배치와 유사하다고 보겠다.

15) 12세기 이후 신앙결사운동의 중요한 두 주체는 지놀이 주도한 조계종의 수선결사와 천태종을 중심으로

요사, 강당을 연결하는 배치형식이 발달하였다. 이 유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지 중정형, 또는 사동 중정형 배치형식이다. 사찰건축의 전면에 건립된 누는 중층으로 외부에서 진입하는 문루의 역할과 중정에서 연결되는 강당의 역할을 하는 누하진입 형식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누하진입 형식의 도입은 지역적으로 적용사례가 매우 다르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사찰의 누 중에서 중층이면서 경사지를 이용해 중정을 만드는 누의 사례는 총 29개소이고 이중 누하진입을 하는 사례는 21개소에 달한다.¹⁷⁾ 21곳의 누하진입 사찰 중 절반 이상인 12곳이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같은 산지 중정형 사찰이라 해도 호남지역에 비해 폐쇄적인 중정구조를 갖는다.¹⁸⁾ 이러한 평면형식은 다른 지방에 비해 누하진입을 선호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이고 같은 경상북도 내의 서원과 향교건축의 영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귀족 사이에서 원당사찰의 건립이 크게 유행하였다. 원당들은 능과 가까운 곳에 건립되었고 사원전을 확보하여 재정도 비교적 안정돼 있었다¹⁹⁾. 고려시대의 유학자들은 대체로 유불도교에 모두 능통하였고 각 종교의 특성을 융합하는 삼교조화사상이 널리 보편화되어 있었다.²⁰⁾ 이런 까닭에 고려가

조선으로 왕조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산지에 지어진 원당사찰들은 유교적 공간으로 전용되는 일이 자연스러웠다.²¹⁾ 안동처럼 씨족사회 기반이 굳건한 지역에서는 집안 내의 원당사찰이나 재실이 모두 조상을 모시는 기관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타 지역에 비해 강했다.

[표 2] 조사대상 사찰목록

사찰명	루각명	건립시기	칸수	진입/기능	비고
부석사	법종각	1747	3×3	누하/문루	경북
	안양루	1596	3×3	누하/누각	
봉정사	덕회루	1680	5×3	누하/강당	경북
전등사	대조루	1749개건	5×2	누하/강당	경기
구룡사	보광루	1706	5×3	누하/강당	강원
내소사	봉래루	1633	5×3	우각/강당	전북
파계사	진동루	1715	5×3	누하/강당	경북
환성사	수월관	1635	5×2	누하/강당	경북
백홍암	보화루	1730	5×2	누하/문루	경북
화암사	우화루	1691	3×2	우각/강당	전북
화방사	채진루	1637	5×3	우각/강당	경남
용문사	자운루	1681중건	5×3	누하/강당	경북
고운사	가운루	1668	5×2	누하/계곡	경북
다솔사	대양루	1748	5×4	우각/강당	경남
암자조사목록					
선암사	대선루	1719	5×3	누하/누문	전남
봉정사	영산암	19c	7×2	누하/누문	경북
홍주사	만세루	1527	3×3	우각/강당	충남

이상의 내용을 정리 요약해 볼 때 조선시대의 사찰루는

(1) 다른 건축형식에 비해 비교적 일찍 중정을 이루는 전각 배치가 발달하였고

기 등 절의 비문을 직접 썼으며 觀瀾寺를 창건하기도 하였다. 이규보는 많은 사찰의 기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유불도 혼합의 사상을 근본으로 하였다. 김정인, 「이규보의 기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21) 향교건축에서 사찰의 형식과 부재가 전용된 사례는 그 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조선초기에는 이러한 전용 사례 이외에 속사라는 형태로 유지가 불가능해진 사찰이 향교나 서원의 보호아래 일정한 부역과 공납을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정혜사는 옥산서원의 속사였다. 이수환, 「영남지방서원의 경제적 기반」, 조선후기논문선집, 220쪽

17)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배치형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19쪽, 1989

18) 전라도 지역의 사찰 중 중정을 이루는 8곳(송림사, 내소사, 문수사, 안국사, 대흥사, 동화사, 불갑사, 다보사)과 경상북도 지역 사찰 8곳(파계사, 환성사, 적천사, 대곡사, 백홍암, 운부암, 은혜사, 금룡사)의 중정크기를 조사한 결과 평균풀치에 비해 전라도는 7곳이 더 넓었다.

19) 고려시대에 원당을 만들고 개인집을 사찰화하는 일이 널리 유행했는데 이런 捨家爲寺는 신라에서부터 기원하여 고려왕실에 널리 퍼졌다. 한기문, 『고려시대 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289쪽, 1998

20) 유불도교에 모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교와 가까웠던 대표적 유학자는 김부식과 이규보를 들 수 있다. 김부식은 영통사 대각국사비, 혜음사 신장

12 논문

(2) 중정의 전면에 층루를 활용하는 형식은 지역에 따라 누하진입과 우각진입 방식의 선호 차이를 보이며

(3) 누의 기능은 1층 문루와 2층 강당이 누하진입 형식에서, 1층 폐쇄, 2층 강당이 우회진입 형식에서 나타난다.

(4) 원당으로 사용되었던 사찰이 유교건축으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향교와 서원의 건축형식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예상된다.

3-2. 향교의 누건축

향교는 조선의 개국시기부터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읍지에 건립되었다. 성종 17년²²⁾일읍일교의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제향과 장학기관으로, 또 한편으로 지역사회의 교화기구로 조선의 통치이념인 유교사상을 널리 보급하는 지역거점의 역할을 하였다.

향교의 건축형식은 고려 성종 때 중국 송나라에서 공자묘의 제도를 가져다²³⁾ 그 예제와 공간배치를 기본으로 국자감을 설립한 시기를 시작으로 볼 때 12세기에 문묘를 중심으로 형식이 갖추어져 갔음을 알 수 있다. 향교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역할 때문에 전체의 85%가 읍지에서 3리 안에, 완만한 경사지에 건립되었다.²⁴⁾

향교의 누는 출입문 또는 명륜당의 기능으로 전국의 중소읍지에 건립되었다. 조사대상 향교 17곳 중 강릉, 옥천, 청양, 단성, 곡성향교 다섯 곳은 명륜당으로,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출입루문과 누각으로 쓰였다.²⁵⁾

22)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발인, 37쪽, 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된 해로 1488년 8개도에 329개소의 향교가 설립되었다고 기록함.

23) 민병하, 「고려시대 성균관의 성립과 발전」, 대동문화연구, 제6권, 19쪽, 1969

24) 이정수, 「조선시대 향교, 서원건축 구성형식의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2쪽, 1987

25) 현재 남아있는 향교 230곳을 조사하니 누가 건립된 건축역사연구 제19권 4호 통권71호 2010년 8월

경사면에 지어진 향교의 평면은 제향 공간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위계를 만드는 전학후묘 형식이다.²⁶⁾ 전면의 누문은 출입자를 통제하고 조망을 확보하는 기능으로 향교의 전면에 널리 적용되었다. 조선개국부터 세종시기까지 약 50여 년 동안 향교는 건축기술과 경제적 능력을 가진 국가의 주도 하에 전국에 동시에 지어졌다.

[표 3] 조사대상 향교목록

향교명	루각명	건립 시기	칸구성	진입/기능	비고
안성향교	봉화루	1883	11×1	누하/문루	경기
춘천향교	장수루	1706	5×2	누하/문루	강원
강릉향교	명륜당	1644	11×2	누하/강당	강원
옥천향교	명륜당	1592	5×3	누하/강당	충북
단양향교	봉화루	1416	5×1	누하/루문	충북
청양향교	명륜당	1614	5×2	우각/강당	충남
곡성향교	명륜당	1773	3×3	누하/강당	전남
봉화향교	태화루	1579	5×2	누하/루문	경북
선산향교	청아루	1623	7×2	누하/루각	경북
순흥향교	영귀루	1790	5×2	누하/루문	경북
영천향교	유래루	1546	3×2	누하/루문	경북
의성향교	광풍루	1670	5×3	누하/루각	경북
용궁향교	세심루	1626	7×2	누하/루각	경북
울산향교	청원루	1711	5×2	누하/루문	경남
동래향교	반화루	1703	3×2	누하/루문	경남
의령향교	수인루	1642	3×2	누하/루문	경남
단성향교	명륜당	1728	5×3	누하/강당	경남

전학후묘의 배치형식은 다시 전당후재 형식과 전재후당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 향교 중 전당후재 형식은 6개소, 전재후당 형식은 11개소다.

전당후재 형식과 전재후당 형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지역성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의 경우 전당후재가, 경상도의 경우 전재후

곳은 62곳으로 27%에 해당했다. 한국의 향교건축 도면 참조.

26) 전국 231곳의 향교 중에서 전묘후학의 배치를 보이는 곳은 8개소뿐이다. 김지민, 「향교건축의 조영규범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01쪽, 1992

당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기, 강원, 충청도는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지형에 대한 고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층루는 주로 전제후당의 경우에 많이 건립되었고, 전당후제에 건립된 향교의 누는 주로 명륜당으로 사용되었다.²⁷⁾

향교가 폐사지를 활용하거나 사찰의 부재를 전용한 경우는 여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문헌을 통해 폐사된 사찰을 향교로 전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개녕향교(開寧鄕校)²⁸⁾ - 예진 현 서쪽의 사자사(獅子寺)를 향교로 바꾸었음

(2) 해평(海平)현 향교²⁹⁾ - 향(鄕)의 선생(先生) 장빈(長賓) 등 백여인이 府로 와서 청하여 폐사지의 자재와 기와로 현부(縣府)에 학교를 일으켰다고 기록

(3) 회강사(會講寺) 기록³⁰⁾ - 벽돌과 나무가 있는 것을 향교에 속하게 하였다.

(4) 안의향교(安義鄕校)³¹⁾ - 성화(成化)9년(1473) 현후(縣侯) 최영(崔瑩)이 설립한 추암사(朽岩寺)엿터에 있다.

(5) 청도향교(淸道鄕校)³²⁾ - 구 사찰에서 기와와 목재를 가져다 지음(김일손의 기록)

향교의 건축 부재 중 사찰과 관련 부재가 보이는 곳도 상당수가 확인된다.

(1) 나주(羅州), 현풍(玄風) 향교는 대성전에 연화문(蓮花紋) 초석이 있음(인근 심향사의

초석을 옮겨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

(2) 창평(昌平)향교는 대성전에 초석, 기단에 석탑의 옥개석 사용(폐사지에 향교가 건립된 것으로 판단)

(3) 고령(固靈)향교 앞에는 동등(懂等)지주가 있음.

(4) 봉화향교 대화루 일부에 연화문 초석 사용

(5) 순흥향교 대성전 건립에 폐사 부재 사용³³⁾

(6) 양주향교 대성전 내부 바닥에 연화문 전돌³⁴⁾

(7) 현풍향교 대성전 기단석 및 초석

(8) 부여향교는 정림사지의 유구를 사용³⁵⁾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향교건축에 사찰건축의 영향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누의 경우 사찰의 전면에 건립된 층루가 향교의 전면에 건립된 층루와 유사한 형식임을 남아있는 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봉정사 덕회루와 같이 5칸의 층루가 건립된 향교는 순흥향교, 단양향교, 의성향교 등이다.³⁶⁾ 이를 보면 같은 지역권 안의 향교와 사찰은 서로 유형적 유사점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 요약해 보면 조선시대 향교의 누는

(1) 조선의 개국과 함께 전국 중소읍지에 전묘후학의 배치형식으로 전면에 건립되었다.

(2) 층루는 전묘후학 배치 중 전제후당 형식과 전당후제의 명륜당에 활용되었다.

(3) 지역적 특성을 보면 전라도 지역은 가

27) 이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충청도다. 조사대상 향교 3개소 가운데 2개소(옥천, 청양)의 누도 명륜당이다.

2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9권 개녕현 학교조(學校條)

29)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9권 선산도호부(善山都護府)

30) 영남읍지(嶺南邑誌) 진주 상(上) 사찰조(寺刹條)

31) 영남읍지(嶺南邑誌) 안의읍 학교조

32) 중수정도학기, 성종 16년, 1485

33) 경북의 향교건축, 순흥향교, 195쪽

34)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향교건축』, 사진확인, 90쪽, 1998

35)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향교건축』, 99쪽, 1998

36) 봉정사의 도리칸은 3칸인 반면 순흥향교, 단양향교의 도리칸은 2칸이고 의성향교만 3칸이다.

14 논문

장 적고, 경상도 지역이 특히 발달, 충청도 지역은 명륜당 형식이 발달하였다.

(4) 향교의 누와 사찰의 누는 같은 지역 안에서 유형적 유사점을 갖는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3-3. 서원의 누건축

서원은 국가가 건립을 주도한 향교와 달리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이 강학과 제학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립교육기관으로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말까지 약 100여 년 사이에 급격히 그 수가 증가하였다³⁷⁾.

같은 유학의 배향과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서원의 평면 형식은 향교와 비교된다. 서원의 배치는 모두 전학후묘 형식이며 조사대상 누가 집중적으로 설립된 경상도 지역은 모두 전재후당 형식을 취한다.³⁸⁾

서원의 누는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호서지방의 서원은 적용한 건축형식의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누를 설치하지 않았다. 호서지방의 서원중 누가 건립된 곳은 필암서원, 무성서원 뿐이다. 또 같은 경상도 지역의 전재후당 형식이지만 누를 건립하는 방법은 경남과 경북이 차이를 보인다. 경북은 5칸 이상의 장방형 평면과 3×2칸 평면이 모두 나타나지만³⁹⁾ 경남

[표 4] 조사대상 향교와 서원의 비교

비교내용	조사대상 서원	조사대상 향교
입지	산지, 계류지, 평지	읍지에서 3리 이내
지형	경사지 평지	평지, 경사지
건립주체, 배향	유학자 (안향, 선현)	국가(공자 5성)
건축시기 (발전기)	16c 후 - 18c 전 (16, 17c)	12c 전 - 17c 후 (14, 15c)
지역성	경상도 지역 집중	전국적 분포
배치형식	전재후당	전당후재, 전재후당
증정형태	정방형 많음	중축선방향 장방형 많음
공간특성	배치변화, 조망성 중시, 강학중시	정형화, 좌우대칭, 엄숙, 배향중시

지역은 3×2칸 문루형식이 주로 나타난다.⁴⁰⁾

서원의 누는 조망성과 개방성 확보를 가장 우선으로 계획되었다. 강당으로 사용한 경우는 없고, 강학기관 내에서 유식과 거경을 위한 공간이 서원루의 목적이었다. 조사대상 누 9개소 중에서 상부에 벽체가 설치된 경우는 1개소 뿐이고 별도의 외삼문이 설치한 경우는 6개소이다.⁴¹⁾

평면형식과 누의 구조를 비교할 때 서원의 누는 향교의 누로부터 구조와 형식의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37) 조선시대 서원건립 상황을 보면 중종부터 고종까지 (1506 - 1871) 약 680곳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각 지역 별로는 강원 23개소, 경기 45개소, 경상 370개소, 전라 120개소, 충청 64개소, 평안 18개소, 함경 15개소, 황해 25개소 등이며 중복기제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정책과 서원의 설립실태』, 역사학보, 제 181집, 80쪽, 2004

서원의 건립은 시기별로 크게 둘로 나뉘는데 명종에서 효종(1546-1659)까지를 성장기, 현종에서 숙종(1660-1720)까지를 남설기로 본다. 조사대상 서원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성장기에 지어졌다. 김은중,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배치형태와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건양논총, 287쪽

38) 조사대상 서원중 유일한 전라도 지역 서원인 필암서원은 전당후재의 형식이다.

39) 엄밀히 말해서 경북의 북쪽과 남쪽도 루의 평면형 건축역사연구 제19권 4호 통권71호 2010년 8월

식이 다르다. 안동을 중심으로 북쪽과 경주지역은 5칸 이상의 장방형 평면을, 상주, 김천과 대구 아래는 3x2칸 평면을 많이 보인다.

40) 향교의 루도 경북과 경남이 서로 다른 양식을 보이는데 서원의 차이가 더 크다.

41) 조사대상 향교루 중 상부에 벽체가 설치된 경우는 17개소 중 6개소다. 서원의 경우 상하부 모두 벽체가 없는 누는 3개소로 안동지역과 경주지역에 위치한다.

42) 서원루가 주로 영남학과 서원에서 나타나므로 경상도 지역의 향교와 서원을 비교하였다. 서원의 평면은 전재후당의 향교건축 배치형식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훨씬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향교에 비해 문루로 쓰는 경우가 적다. 경상남도의 경우, 서원, 향교 모두 3×2칸의 문루가 많이 건립되었다.

서원루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1) 서원의 층루는 건립의 지역적 편차가 커서 조사대상 서원루의 90%가 경상도에 위치한다.

(2) 향교루가 서원루에 영향을 미쳤던 사실을 배치형식과 누의 구조로 확인할 수 있다.

[표 5] 조사대상 서원목록

서원명	루각명	건립 시기	칸의 구성	진입방식/기능	비고
목계서원	읍청루	1705	5×2	누하/문루	안동 길안
병산서원	만대루	1620	7×2	누하/누각	안동 풍산
옥산서원	무변루	1573	7×2	누하/강당	경주
필암서원	화연루	1624	3×3	누하/문루	전남 장성
금오서원	읍청루	1602	3×2	누하/누문	구미 선산
남계서원	풍영루	1840	3×2	누하/누문	경남 함양
자계서원	영귀루	1699	3×2	누하/누문	경북 청도
서악서원	영귀루	1646	5×2	누하/누각	경북 경주
예림서원	독서루	1637	3×2	누하/누문	경남 밀양

(3) 같은 경상도 지역이면서도 경북은 5×2칸형과 3×2칸 형이 모두 골고루 쓰였지만 경남은 3×2칸 형이 집중적으로 쓰였다.

(4) 풍광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 서원루는 조망성과 개방성을 계획의 우선에 두어 사찰, 향교루에 비해 벽체나 판문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다.

(5) 강학공간이면서도 입지와 평면형식의 변화를 주고 자연을 적극적으로 공간에 끌어들이는 점이 특징이다.

4. 각 건축형식에 활용된 누건축의 특성

4-1 평면특성

조사대상 누건축 43개소의 평면형식을 파악해 보았다.

(1) 사찰루의 평면

조사대상 사찰루의 평면은 5×3칸, 5×2칸, 3×3이 주로 나타났다. 다른 건축형식에 비해 도리칸이 깊은 경향을 보인다. 건물의 용도가 강당인 점과 대웅전 뒤에 있던 강당이 전면으로 이동했다는 이론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각주13 참조)

[표 6] 각 건축형식에 나타난 평면형식

형식	5×2칸 이상 ⁴³⁾	5×3칸	5×2칸	3×3칸	3×2칸	기타
사찰	1	7	4	3	1	5×4
향교	5	3	4	1	3	5×1
서원	2		2	1	4	
합계	8	10	10	5	8	2

주칸대 도리칸의 길이 비율은 평균 1.9:1 이다. 실제 건물 규모를 보면 평균면적 84제곱미터로 조사대상 건축형식 중 가장 크다. 지역적으로 특정 칸수가 선호되는 경향은 없으나 이 부분은 선별과정에서 다양한 평면을 선택한 이유일 수도 있다. 조사대상 사찰루 중에 누하진입을 하는 누는 부석사를 제외하고 모두 5칸 형식이다.⁴⁴⁾

(2) 향교루의 평면

향교루의 평면은 5×2칸 이상이 5개소 5×2

43) 5×2칸 이상은 주칸의 수가 5칸 이상이라는 뜻으로 7칸, 11칸을 뜻한다.

44) 이 부분의 객관성을 위해 김봉렬의 연구 중 누하진입을 하는 사찰 누 18곳을 조사했는데 의성의 대곡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5칸 형식이거나 그 이상이였다. 부석사의 경우 조선시대에 형성된 중정구조로 판단하기 힘들다.

16 논문

칸이 4개소, 5×3칸이 3개소, 3×2칸이 3개소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 사찰루에 비해 도리칸의 칸수가 적고 실제 길이도 주칸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향교의 주칸 대 도리칸의 비는 2.76:1이고 실제 건물 규모의 평균 면적은 57제곱미터⁴⁵⁾이다.

조사대상 향교 중 강릉향교와 청양향교 만 우각진입을 하며 두 곳 모두 명륜당의 기능으로 사용한다.

(3) 서원루의 평면

서원루의 평면은 5×2칸과 5×2칸 이상이 각각 2개소, 3×2칸이 5개소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원루의 평면은 주칸대 도리칸의 비율이나 면적이 향교루와 사찰루의 중간이다. 조사대상 서원루의 평균 면적은 67제곱미터, 주칸 대 도리칸의 비율은 2.1:1 이다. 서원루는 건립지역 자체가 편중되어 있어 각 지역별 평면차이는 의미가 없다. 조사대상 누 중에 3곳만 출입문으로 쓰이고 누각과 강당으로 쓰인다. 향교에 비해 입면처리가 개방적이다.

(4)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 - 각 건축형식에 모두 나타나는 평면형은 전면 5칸 측면 2칸 형식과 전면 3칸 측면 2칸 형식이다. 향교와 사찰은 2층 입면을 폐쇄적으로 사용하는 유사점을 보이고 향교와 서원은 대부분 누하진입을 하는 유사점을 보인다.

차이점 - 주칸대 도리칸의 평균 길이 비율은 향교 - 서원 - 사찰 순으로 나타났다. 누의 면적 비율은 사찰 - 서원 - 향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교루의 평면이 사찰루에 비해 긴 장방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사찰루의 경우 산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면 3칸,

45) 조사대상 향교루 중 강릉향교와 안성향교는 주칸 칸수가 너무 커서 칸비율과 면적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측면 2칸의 누문 형식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4-2. 지역특성

조사대상 누 43곳 중 21곳이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8곳이 경상남도⁴⁶⁾에 위치할 만큼 누는 영남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건축구조이다. 따라서 지역특성의 분석 방법을 경상도 지역과 그 이외 지역의 비교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비교로 나누었다.

(1) 경상도와 그 이외 지역

경상도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을 비교하면 지역적 특성이 가장 적은 형식 사찰이고 가장 많은 형식은 서원이다. 향교의 경우 누가 적용된 전당후재 형식은 대체로 명륜당으로 사용하며 그 분포는 충청도와 전라도, 강원도, 경상남도⁴⁷⁾이다. 사찰평면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전면 5칸 형식이 가장 많았고, 충청도 지역에서만 3칸 형식이 많이 나타난다. 향교루는 전국에 분포하면서도 지역적 형식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경상북도와 강원도는 전면 5칸과 그 이상의 평면이 많이 보이고 전라도와 경상남도는 전면 3칸 형식이 많이 나타난다. 지역별 향교루의 도리칸대 주칸의 비율을 보면 경상북도는 1:3.2, 경상남도는 1:2.1, 그 밖의 지역은 1:2.6으로 경상남도의 누가 정방형에 가깝고 경상북도의 누가 긴 장방형임을 알 수 있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향교는 명륜당 이외에 기본적으로 거의 누를 채용하지 않는다.

(2)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세 가지 건축형식에서 모두 누를 많이 채용하는 지방이다.

46) 조사대상 누는 비교적 전국에서 골고루 선택하였으므로 실제 경상도 지역의 누 분포는 조사대상보다 높다고 하겠다.

47) 조사대상 향교루 중 명륜당은 총 5곳으로 강릉, 우천, 청양, 곡성, 단성으로 충청도가 가장 많다.

사찰의 경우 남도와 북도에서 평면형식 차이는 비교적 적으나 진입방법에서 경상남도는 우각진입을, 경상북도는 누하진입을 선호한다.

향교의 경우 남도는 전면 3칸의 누문형식이, 북도의 경우 전면 5칸 이상의 누각형식이 주류를 이루는데 경상북도의 남쪽은 경남지역과 유사한 형식이 많이 보인다.⁴⁸⁾

서원의 경우 안동지역과 경주지역은 전면 5칸 이상의 장방형 형식이 주로 나타나며 그 밖의 지역과 경상남도에서는 전면 3칸의 누문형식이 지배적이다. 경상북도 각 지역의 향교와 서원의 누를 비교하여 보면 서로 형식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서원건축 누에 향교루의 영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사찰, 향교, 서원 세 가지 건축형식에 활용된 층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정을 이루는 층루의 사례를 43채 선정하여 각 건축형식 사이에 평면형식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1) 평면형식의 특성

누하진입을 하는 층루는 전면 5칸 형식과 전면 3칸 형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주칸 대 도리칸의 비로 평면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사찰이 1.9:1, 서원이 2.1:1, 향교가 2.76:1로 사찰루의 평면이 정방형에 비교적 가깝고 향교루의 평면은 대체로 긴 장방형임을 알 수 있다.

48) 경상북도 향교의 누는 같은 경상북도 내에서도 지역적 편차가 있다. 안동과 동해안 지역은 5칸 이상의 층루가 많이 건립되었고, 영천 대구 지역은 경남지방과 유사한 3칸형이 많이 나타났다. 반면 성주, 고령 지역에서는 누가 아예 건립되지 않았다.

사찰루는 누하진입을 하는 경우 주칸 수가 대부분 5칸이었고 누의 용도는 2층 강당, 1층 누문이 일반적이며 우회진입을 하는 사찰은 1층의 별다른 용도는 없다.⁴⁹⁾

향교루는 도리칸의 길이가 짧아 회랑의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명륜당으로 쓰이는 경우는 도리칸의 길이가 그다지 짧지 않다.⁵⁰⁾ 거의 모든 향교의 누는 누하진입을 한다.

서원의 누는 5×2칸 형식과 3×2칸 형식으로 양분된다. 영남학과 서원에서만 주로 나타난다. 조망성이 좋은 곳에 건립되며 2층 입면이 대체로 개방되어 있다. 누의 구조, 형식은 향교의 누와 가장 유사하다.

(2) 지역적 특성

경상도와 그 이외의 지역은 우선 누의 선호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사찰은 충청도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 누가 나타나지만 누하진입은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향교의 경우 전국적으로 누가 나타나지만 충청, 전라도 지역은 주로 명륜당으로 쓰인다. 강원도, 경상북도 안동지역에서는 7칸 이상의 긴 층루가 나타난다.⁵¹⁾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향교루를 비교하면 경상북도는 5칸 이상의 장방형 누를 선호하고 경상남도는 3×2칸의 누문형 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의 숫자는 경남지역이 경북 지역보다 많지만 누의 규모, 평면형식의 다양성 건립연대 등을 감안하면 향교루가 가장 발달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보인다. 서원루의 경

49) 일층을 수납공간으로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구조를 개조하면서 수납으로 쓰지 않는다.

50) 청양향교는 2.3:1, 곡성향교는 1.6:1, 옥천향교는 2.3:1 등인데 강릉향교만 예외이다.

51) 한국전쟁 때 소실된 안동향교 누의 기록을 보면 9칸루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지역의 긴 층루는 전통적인 것으로 보인다.

18 논문

우는 대체로 향교루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서원루는 연남학과 서원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므로 지역적 편차는 가장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건축형식에 나타나는 누를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평면형식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조사대상 누를 전국적으로 골고루 선정하려 하였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별한 유형을 찾아내기보다 전체적인 경향과 지역성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누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지형적 영향이 가장 크고, 누를 활용하는 지역사회의 조직 발달과도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내용은 후속연구를 통해 더 밝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2. 이행, 『신증동국여지승람3』, 솔출판사, 1996
 3.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4.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발언, 1997
 5.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향교건축』, 1998
 6. 김덕문, 김경표, 「중층건물 층구조의 유형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 1996
 7.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8. 윤장섭, 『한국건축사』, 기문당, 1996
 9. 馬曉, 『中國古代木樓閣』, 中華書局, 2007
 10. 이용범외, 「동문선의 누정기에서 본 고려 중, 후기의 누정건축고」, 건축역사연구, 제 2권, 1993
 11. 정기호, 「사찰조경연구」, 제7권,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 1999
 12.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13. 김봉렬, 박종진, 「고려가람의 구성형식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권, 1989
 14. 김지민, 「향교건축의 조영규범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2
 15. 이정수, 「조선시대 향교, 서원건축 구성형식의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16. 민병하, 「고려시대 성균관의 성립과 발전」, 대동문화연구, 제6권, 1969
 17. 성상모외, 「조선후기 사찰건축에서 누의 건축형식」,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제23권, 2004
 18. 이정국, 「고려시대 사찰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7
 19. 성상모, 김경표, 「조선후기 사찰건축에서 누의 건축형식」,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제23권, 2004
 20. 김정인, 「이규보의 기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21. 조영화, 김일진, 「향교에서 루의 건축적 구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논문집, 11권, 1995
 22. 김은중, 「조선시대 사학건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
 23. 정기철, 「17세기 사람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영건」, 서울대 박사논문, 1997
 24. 김일진외, 「조선시대 재실건축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4권, 1988
 25. 정건필, 「중층 口자형 재실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 접수(2010. 4. 15)
수정(1차: 2010. 6. 22, 2차: 2010. 7. 5)
게재확정(2010. 7. 5)

The Architectural Type of 'Lu' in Choseon Dynasty

Choi, Mi-Kyung

(Ph. D SungKyunKwan Univ.)

Lee Sang-Hae

(Prof. SungKyunKwan Univ.)

Abstract

'Lu' is one of the Korean traditional building structure.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Lu' can be classified two types with its use. One is single building type and the other is a part of building type within building complex. This study is about the two-storied 'Lu' that was built on part of building complex. 'Lu' built in building complex such like Sa-chal, Hyang-gyo, Seo-won, Jae-sil, has the similar characters .

1. It is built by taking slope site.
2. It is one of four buildings that forms court yard.
3. It uses simple building structure on the purpose of openness
4. It can control view with using window.

The column type of 'Lu' can be classified with 3 style. These are 5x2 Kan style, 3x2 Kan style and 5x3 Kan style. It would be assumed with the result of study that 5x2 Kan style has its origin in Hoe-Rang structure, 3x2 Kan style is originated from Joong-Moon(middle gate) structure, and 5x3 Kan is originated from Kang-Dang structure.

Keywords : Lu, courtyard, two-storied Lu, Sa-Chal, Hyang-Gyo, Seo-Won, Jae-Sil
